

홀트 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AUTUMN 2018 | VOL. 191



가을 이야기

10주년을 맞이한 '꿈과희망지원'사업. 꿈동이로 선발되어 캠프에 참여한 아말(11세), 아영(8세)이는 친구들과 숲속에서 보내는 오늘이 즐겁기만 합니다. 특별한 추억이 된 '꿈동이' 여름방학 힐링캠프에 여러분도 함께 해요.(4p계속)

사진 | 이록 사진작가·Looks Studio

- 04 꿈과 희망
- 10 홀트 인터뷰
- 12 맘 든든 울타리
- 14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 16 Love In World
- 18 희망풍경 1
- 21 희망풍경 2
- 24 희망풍경 3
- 26 나눔기업
- 28 나눔이웃
- 30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91호 · 계간 발행일 | 2018년 9월 14일 발행인 | 말리 홀트 편집인 | 김호현
발간위원 | 김병수(홍보팀장), 조선미(국내입양팀장), 김혜성(아동양육팀장), 박꽃송이(나눔협력팀장), 박재범(나눔지원팀장), 김보혜(일산복지타운), 황자혜(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알투디투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TEL: 02-331-7173 FAX: 02-331-7149
이메일 | pr@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 · 좋은 사연 · 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	
말리 홀트 이사장 임부용 이사(HICS 부회장) 정용근 이사((전)동국대학교 교수) 설태호 이사(주북상사 대표) 김경희 이사(전 홀트전국후원회 회장)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홍현국 감사(공인회계사) 최수열 감사(공인회계사)	
본부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02)331-7000 T.1588-7501
지방사무소 서울사무소 www.holt.or.kr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인천사무소 www.icholt.or.kr 전북사무소 www.jbholt.or.kr 충청사무소 www.ccholt.or.kr	T.02)331-7000 T.033)251-2344 T.031)217-5999 T.062)227-8877 T.053)756-0183 T.051)465-0224 T.032)424-0145 T.063)288-0880 T.042)586-1983
부속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일산요양원 홀트학교 홀트강동복지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동중합사회복지관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1)914-6631 T.031)915-2911 T.02)2251-6100 T.031)929-1400 T.051)543-2431 T.031)790-2900 T.053)746-7501 T.051)760-3600 T.053)563-1007 T.033)251-8014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입양가정지원센터 홀트 대구심리상담센터 홀트 광주심리상담센터 홀트 인천심리상담센터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홀트미추홀	T.031)790-2966 T.02)6938-5550 T.053)627-8875 T.062)363-8878 T.032)424-5839 T.032)424-1391 T.070)8210-1601
전주영아원 홀트대구어린이집 마포어린이집 중동어린이집 홀트어린이집 하남은방울어린이집	T.063)222-1559 T.053)746-7504 T.02)334-4743 T.02)375-6755 T.031)217-0437 T.031)790-297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름 www.holtarum.or.kr 고운들·홀트고운학교 www.goun.or.kr 아침들 www.achim.or.kr 마포클로버 www.mapoclover.or.kr 대전클로버 www.djclover.or.kr 대구클로버 www.holtlove.or.kr 광주클로버 www.holtlove.or.kr/gj-clover	T.02)334-4614 T.031)216-9004 T.042)585-3004 T.02)322-3325 T.042)583-4006 T.053)654-0181 T.062)361-5900
국제개발협력사업 캄보디아사무소(홀트드림센터) 몽골사무소(홀트드림센터) 탄자니아(홀트드림센터) 네팔(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 T.070)4006-4116 T.02)331-7085 T.02)331-7085

안녕하십니까?

홀트아동복지회 신임 회장 김호현입니다.

저는 1983년 9월에 홀트아동복지회에 입사하여 지난 36년간 서울과 지방에서 복지사업과 행정 등 여러 일을 두루 경험하고 지난 9월 3일에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입사 당시 우리나라는 민주화 투쟁,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였음을 기억합니다. 때를 같이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급증하였고 해외입양아동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였습니다. 해외입양의 공과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만, '해리·버다 홀트 부부'의 "모든 아이들은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고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실천이념은 부모를 잃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안정된 삶을 이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홀트아동복지회의 중요한 미션과 가치가 되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60여 년 간 참으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 주는 일뿐 아니라, 홀트일산복지타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이끌어 왔고, 지역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 심리상담센터 등 다양한 사업들로 어렵고 힘든 많은 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홀트의 역사 속에, 어려웠던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의 그림자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듯이, '도움을 받던 기관에서 캄보디아, 몽골, 네팔, 탄자니아의 아이들을 돕는 더 큰 기관'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는 대를 이어 온 '홀트 가(家)'의 송고한 사랑과, 홀트를 지지하고 도움을 주신 수많은 후원자님과 자원봉사자님의 사랑의 결과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여러 일을 잘 이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변화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찾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소득가정아동, 의료문제아동, 시설퇴소청소년, 다문화가정아동, 북한이탈주민아동 등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또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으로 학업중단과 생계유지, 아동양육 등을 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한 미혼한부모를 위해, 그리고 해외빈곤국가의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찾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계절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김호현 드림

꿈꾸는 별이 빛나는 밤에

꿈동이 10주년 여름방학 힐링캠프



2009년 시작된 꿈과희망지원사업은 위기가정아동 100명을 선정하여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고 2018년 현재는 300명의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살아가기도 힘들었던 가정에서 지내던 아동들에게 꿈을 찾게 하고 응원하며 이를 향해 나아가도록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비를 지원받는 아동들을 '꿈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귀한 사업이 지속되어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하는 기적을 일구었습니다.

평창에서 맞이한 꿈동이 여름방학 힐링캠프

“꿈동이 여러분, 40여 년 만에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왔다고 해요. 더위를 뚫고 이곳 울창한 숲속, 시원한 평창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고 기쁩니다.” 담당자의 환영 멘트로 본격적인 캠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홀트 단위기관이 속해 있는 전국의 꿈동이가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지내다가 1년에 한 번 다 같이 만나는 날이 바로 방학 시즌의 캠프입니다. 이번 캠프 또한 10주년을 맞이하였는데요. 올해는 동계올림픽 장소이기도 했던 '평창'에서 8월 16일~17일, 1박 2일 동안 여름을 만끽했습니다. 뜨거운 낮에는 물놀이를 더위를 식히고, 본격적인 꿈동이의 밤 '꿈꾸는 별이 빛나는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매 해 캠프에 참여해 꿈동이들과 추억을 쌓았던 선 홍보대사도 꿈동이 10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 멀리 평창까지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꿈꾸는 별이 빛나는 밤에



강도현 MC의 진행으로 선 홍보대사와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꿈동이들은 선 홍보대사를 '선 삼촌'이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선 삼촌은 꿈동이의 눈높이에 맞춰 과거의 삶을 추억했습니다. 또한 평소 선 삼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을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직접 만든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선 삼촌이 이룬 가수의 꿈, 지누선의 곡인 '전화번호' 노래에 맞춰 성심성의껏 율동을 준비한 꿈동이의 무대가 이어졌고, 곧이어 10주년을 축하하며 이 캠프를 함께 준비한



1 뜨거운 낮 물놀이를 더위를 식히는 꿈동이
2 즐거운 바비큐 시간을 갖는 꿈동이

스텝들의 '말해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꿈동이들도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선 홍보대사는 “이 귀한 일들을 하길 참 잘했다고 느낍니다. 10년 전, 광고를 찍고 그 감사한 마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아내(정혜영 홍보대사)와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꿈동이 여러분이 선물입니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꿈동이들을 위해 마련한 무대! 선 홍보대사는 무려 6곡의 노래를 부르며 열정적인 무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2009~2018 (10년)
지원 기간



2,700 명
전국 꿈동이 숫자



27 억원
누적 지원금





선 삼촌과 함께한 신나는 콘서트 현장

씨앗이 뿌려지고 넘치는 열매가 되어가는 '나눔 릴레이'

2009년 선·정혜영 홍보대사의 기부로 씨앗을 뿌린 '꿈과희망지원' 사업은, 현재는 매해 300명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시작일 뿐이지만 더 많은 후원자들의 사랑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선·정혜영 홍보대사의 처음 바람처럼, 지금은 또 다른 후원자들의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뒤를 이었고,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 기념교회, 탐리더스(홀트 고액후원자모임)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캠프부터는 가수 하니(EXID)도 모자를 후원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MC로 활약 중인 강도현 아나운서 또한 작년부터 꿈둥이들의 캠프가 더욱 풍성해 질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왔으며 평창수에서 생수를 후원해주셨습니다.

꿈둥이들은 현재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선생님들과 선 삼촌, 혜영이 이모, 그리고 많은 후원자들은 언제나 아이들을 꿈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궁금하다는 선 홍보대사의 말처럼 홀트 또한 10년 후, 멋지게 성장한 꿈둥이들을 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나**

클.방은지·아동청소년팀

꿈둥이의 꿈을 후원해주시는 많은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꿈과희망지원 사업 후원

선·정혜영 홍보대사 /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 탐리더스(고액후원자모임)

* 캠프 후원

모자후원 : 하니(EXID) / 재능후원 : MC강도현 / 생수: 평창수



꿈과희망지원사업 담당 방은지 사회복지사 이야기



2018년 꿈과희망지원사업을 담당한 방은지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사업담당자로서 아이들을 직접 마주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캠프 기획을 맡으면서 '인연'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 바로 10년 전, 예비사회복지사 시절에 만난 꼬맹이 윤미를 다시 만난 일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의 꿈을 가지면서 홀트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당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습을 했는데, 그때 초등 2학년 다문화가정 아이인 윤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덧 사회복지사가 되어 홀트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기에 기억만 하며 살았는데, 올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캠프를 기획하다가, 훌쩍 자란 고등학생 윤미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시절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어 또렷이 기억이 났습니다. 윤미는 공부를 곧잘 하는 모범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참 똑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미는 '국제 NGO에서 일하는 세계적인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린 윤미를 기억하는 저는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미와 같은 꿈둥이들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며 또 하루를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꿈둥이 아이들이 직접 보내온 감사의 편지입니다.



저의 꿈은 CSI 과학수사대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일단 경찰대학에 갈 거예요.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제가 공부하도록 도움을 주신 선 삼촌과 혜영이 이모를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커서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고 싶어요.

- 권오재 / 10세

안녕하세요. 저는 지원을 받고 좋아하는 책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시간도 잘 보내고 있어요. 올 해로 고3이라서 미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10년 동안 지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오성 / 19세

교육비를 후원해 주셔서 피아노를 열심히 배운 끝에 콩쿨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후원받은 만큼 나누는 사람이 될게요.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손오지 / 16세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사고 싶은 것들도 사보고 평범한 고등학생과 같이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후원자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제가 선 후원자님을 처음 뵈었을 때가 여덟 살 때였어요. 그 때 레크레이션 때 엄청 가까이서 만났는데 표현력이 없어서 말도 못했지만 너무 좋았고 기뻐했어요! 정말 10년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의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미술로 진로를 정했어요! 모든 미술 입시생에게 응원을 해주세요^^! 그동안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김오정 / 18세

소년(少年)에서 청년(靑年)으로

꿈동이 박재홍 군



“가정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길 바랐어요. 그런 바람으로 10년 전, 처음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홀트 선 홍보대사는 처음 ‘꿈과희망지원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런 바람으로 후원을 했다고 했다.
 사실 열심히만 한다고 꿈을 이루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재홍 군이 축구를 배울 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던 말은, “축구하면 돈 많이 들텐데”였다. 꿈을 꾸는 것도 형편껏 해야 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재홍 군은 선의 바람처럼 축구라는 꿈을 10년이나 유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한 계단씩 올라왔다. 한걸음 디딜때마다 든든한 후원자인 아버지, 복지관 선생님, 주변 이웃들은 기꺼이 재홍 군을 응원해왔다. 이제 재홍 군은 더 큰 그라운드로 나가기 위한 출발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



꿈을 위해 열심히 뛰는 재홍 군

재홍 군은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홀트하남종합사회복지관(이하 홀트하남복지관)에서 ‘꿈과희망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꿈동이로 선정되었다. 재홍 군 아버지는 10여 년 전, 후두암 때문에 큰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하던 간판 사업을 접어야 했다. 건강을 잃으면서 재산과 일, 사람까지 다 잃고 남은 건 오롯이 두 부자(父子)였다. 그해 지인에게 사정해서 빌린 컨테이너 박스에서 초등학생 재홍 군과 몸이 성치 못한 아버지는 추운 겨울을 났다. 이런 딱한 사정을 아는 동사무소 직원은 인근복지관에 이들을 소개시켜줬고, 그렇게 홀트하남복지관과 인연이 닿았다.


또래에 비해 몸이 날래고, 인내심이 강한 재홍 군에게 운동을 권한 것도 복지관 선생님이였다. 시험 삼아 데려간 체육관에서 다른 아이들이었으면 벌써 포기했을만한 고된 훈련을 시켰는데, 재홍 군은 끝까지 해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와 코치는 ‘아, 운동을 시켜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후 재홍 군은 학교 대표 선수로 그라운드를 누비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축구를 놓아본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축구는 재홍 군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꿈과 희망 그 자체였다. 재홍 군의 훈련 상황이나 몸 상태를 아는 것은 기본이고 대한민국 아니, 세계 축구 선수 정보까지 줄줄 외우고 있을 정도다. 무더위에 불편한 한쪽 다리를 끌고, 재홍 군이 운동하는 그 어느 곳이건 아버지는 함께 했다.

아버지는 지난 10년 동안 어려웠던 일을 이제는 웃으며 이야기



든든한 응원군 아버지와 함께

한다. “죽고 싶었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사실 그 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어려운 사람에게 그런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고, 재홍이도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홍이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깨끗하게 살아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뿐이에요.” 아버지는 재홍 군에게 지금이나 과거 더 어려웠을 때나 늘 한결같은 말을 한다. 도움 받은 걸 감사해하고, 성공의 여부를 떠나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아버지 덕분에 재홍 군은 어느새 폐지 줍는 어르신들 보면 짐을 나누어 줄 줄 알고, 적은 돈이지만 식사 하신다고 제 용돈도 나눌 줄 아는 청년으로 성장했다.

재홍 군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축구를 계속 할 수 있었고, 꿈을 키워올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꿈을 향해 발돋움하고 있다. 현재 재홍 군은 겨울에 있을 K3리그 시민구단 입단 테스트를 앞두고 연습과 몸 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몇 개월 전 있었던 발목 부상과 슬럼프로 생긴 공백을 메우려 온 힘을 다해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성인 축구단에 들어가면 ‘축구를 즐기면서 하고 싶다’는 말에서 그간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렵듯이 나마 짐작이 됐다. 운동이 힘들 때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울던 10살 소년은 이제 아픈 아버지를 걱정하고, 주변을 돌볼 줄 아는 든든한 19살의 청년이 되었다. 꿈과 희망이었던 ‘축구’의 결실을 이제 막 맺으려는, 재홍 군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엄마 아빠,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요!

박영호 · 최지선 부부와 박성우 · 박건우 형제



“이아~ 이 가족, 사진 꽤 찍는데요!”라는 말에 엄마 최지선 씨가 “네, 저희가 좀 해요~”라며 호호 웃는다. 아직 입양의 의미에 대해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엄마 아빠, 그때 절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할 줄 아는 의젓한 첫째와 박력 넘치는 개구쟁이 둘째가 온 후 큰 웃음소리 나는 일이 더욱 많아진 박영호 · 최지선 부부 가족을 만났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까르르 까르르 아이들 웃는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낯설지도 않은지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자랑하는 첫째 성우, 아직은 17개월여로 낯가림이 있는 건우까지 확실히 사내 아이 둘이라 에너지가 더 충만한 것 같다. 이런 집은 엄마의 포스도 남다르는데, 최지선 씨는 오랫동안



동안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한 경력 덕분인지 조곤조곤 부드러운 한 마디에도 아이들이 금세 조용해진다. 입양 가정에 있어 여아를 선호하는 건 공공연한 일인데 이 부부는 어떻게 아들 둘의 입양을 결정하게 됐을까? “사실 처음에는 저희도 여자 아이를 원했어요.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딸이면 더 아기가 자기 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로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만 500여 명의 남자 아이들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우를 입양하게 됐죠.” 부부는 자원봉사를 하러 간 적이 있는 음성 천사의 집을 찾았다. 그곳에만 해도 여자는 겨우 2명, 남자는 130명이나 있었던 걸 보면 우리나라의 입양 문화에서 성비가 얼마나 편중돼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장난감 같은 사이!

첫째 성우는 그 130명 중 한 명이었다. 자원봉사를 하러 갔을 때 11개월 된 아이에게 밥을 먹이면서 첫 인연을 맺었다. 남편 아기 때 사진이 딱 한 장 남아 있는데 그 모습이 성우와 어찌나 닮았는지... 바로 ‘이 아이다!’라는 느낌이 왔단다. “둘째는 성우가 남동생을 원해서 또 남자아이를 입양하게 됐어요.”



남자아이들의 입양 현실에 대한 저희 부부의 충격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런데 건우 역시 남편 아기 때 사진이랑 꼭 닮은 거 있죠? 저희는 성우를 닮은 아이라면 다 좋다는 생각이었는데, 자랄수록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외모부터 성격까지 전혀 안 비슷해요! 호호호.”

부모님의 말에 따르면 성우는 외향성 99%로 처음 보는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성격을 지녔는데다 감성적인 면이 엄마를 닮았다면, 건우는 누가 봐도 남성적인 성격으로 익스트림 비슷한 수준의 놀이를 즐겨 좀 더 크면 아빠와 취미 생활을 즐기기에 제격일 거란다. 건우의 성장과 행동을 본 시부모님도 “극성 맞던 영호 어릴 때랑 똑같네!”라며 흐뭇해하셨다고.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며 부모 자식 간에도 성향 공감이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이다.

“그런데 성우 처음 왔을 때 나만 보면 비명 지르고 울면서 전속력으로 도망갔잖아~ 기억나?” 성우를 안고 있던 박영호 씨가 살짝 서운한 감정을 비친다. 그래도 지금은 얼마나 찰떡처럼 붙어 있는지, 어떨 때보면 마치 남자 셋이 친구인 듯하다. 그만큼 아빠가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지금은 회사에서 최초로 육아단축근무를 활용할 만큼 아이들에게 열성적이다. 엄마 아빠랑 친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아이들이 떼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게 부부의 생각으로, 실제 아이와 아빠는 서로를 자신의 장난감이라고 말할 정도로 친밀감이 높고 보물과도 같은 존재다. “모든 걸 아이들과 공유하자는 게 저희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성우도 공개 입양을 했고, 그 과정을 보여주고 싶어서 둘째 때는 입양의 모든 과정을 성우와 함께했어요. 그래서일까요? 건우 입양 시기에 성우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 그때 나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요.” 그 전에는 엄마 배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공룡 알에서 태어나는 줄 알다가 이후 입양이란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 이게 되었죠(웃음).”

첫 입양 후, 일주일간 ‘내가 정말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진 적도 있지만 이제 부부는 안다. 그 자신들보다 이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또한 공명하다. 두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그려져나갈지... 부모가 행복하고 잘 살면 아이들도 잘 살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부는 오늘도 다짐해본다. “우리가 먼저 잘 살자! 그럼 아이들도 행복할거야!” HOOT

우리 집에 놀러와



오늘도 예빈이는 친구들 몰래 집에 옵니다

예빈이는 되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 꿈 많은 어린 소녀입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에 부끄러움도 많지만,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배려를 잘해서 학급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면 예빈이 집에서 더 놀자고 이야기하지만 그때마다 친구들에게 다른 말로 둘러대고 혼자서 몰래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옵니다.

분홍색으로 꾸민 내 방에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예빈이는 평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끔 예빈이는 다른 친구들 집에 놀러 가서 온통 분홍색으로 꾸며진 친구의 방을 보고 나면 너무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면 예빈이는 새하얀 스케치북에 자신이 갖고 싶은 집과 방을 그려봅니다. 그림 속의 집은 깨끗하고 안전한 핑크색으로 꾸며진 따뜻한 방이 있고 언제든지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현실 속 예빈이 집은 월세 15만원 단칸방

현실 속의 예빈이의 집은 햇빛은 물론이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 곰팡이로 가득합니다. 장롱과 책장은 곰팡이로 이미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수납장 밖으로 나온 짐들이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탓에 예빈이는 늘 엎드려 숙제를 합니다. 예빈이가 살고 있는 방은 예빈이의 스케치북에 있는 그림 속 집과는 전혀 다른 월세 15만원짜리 단칸방입니다.

예빈이의 그림 속 집 만들기

예빈이가 그림 속에서 그리던 집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홀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맘 든든 울타리' 주거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아동을 돕기 위한 이 사업을 평소 예빈이가 심리상담을 받던 홀트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알게 되었고, 담당 선생님의 도움으로 주거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집에 놀러올래?


작년까지 보증금 0원에 월세 15만 원짜리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곰팡이 가득한 단칸방에서 엄마와 둘이서 생활하던 예빈이. 최근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예빈이만 사용하는 예쁜 침대와 책상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바로 예빈이가 꿈 속에서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놀던 그런 집과 방으로 말이죠! 꿈꾸던 방이 생긴 후 예빈이 방에서는 예빈이의 친구들과 예빈이의 속닥속닥 비밀이야기가 매일 흘러나옵니다.

영원히 이어질 든든한 울타리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꿈꾸던 집으로 이사 후 예빈이에게 "이사오니 어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눈시울이 붉어진 예빈이는



홀트 주거지원사업 <맘 든든 울타리>를 통해 지원받은 예빈이네 새 집

"선생님! 너무 꿈만 같아요! 저도 꼭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아이들 꿈을 이루어주고 싶어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홀트의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예빈이가 꿈꾸던 '맘 든든 울타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는 예빈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멋지게 성장한 예빈이가 또 다른 아이들에게 만들어 줄 '맘 든든 울타리'로 말이죠.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온 영준이



2016년 겨울에 태어난 영준이는 크리스마스 즈음, 우리에게 왔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온 사랑스러운 영준이는 홀트 선생님들과 영준이를 돌봐주시는 위탁모의 많은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영준이가 성장발달 과정에 따라 눈을 맞춰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 눈을 정확하게 마주치지 못하고 눈동자가 자주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준이를 검진한 안과에서는 소아신경과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에 따라 소아신경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뇌파검사와 MRI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소뇌형성저하증(소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는 질환)이 의심되는 이상소견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영준이는 점차 전반적으로 발달이 뒤처지고 몸 근육의 긴장도가 저하되어 생후 7개월 때부터 현재까지 일년이 넘게 일주일에 2회씩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위탁모는 아이와 함께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일이 쉽지 않지만 영준이의 건강을 위해 한 달 전부터는 작업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한 차레도 빠지지 않고 치료에 열심이지만 19개월 영준이의 발달검사 결과 신체발달은 5~8개월 수준, 언어는 12개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재활의학과에서는 영준이의 의료기록과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아직 확진할 수는 없지만 주버트 신드롬(Joubert syndrome)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주버트 신드롬은 10만 명 중 1명에게 발견되는 희귀병으로,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없어 운동치료나 언어치료 등과 같은 보조 요법을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추가 검사를 더 진행해보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이어지는 다른 검사에서도 영준이는 대뇌 백질연화증과 같은 뇌와 관련된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영준이는 조금씩 성장하는 중


영준이는 낮가림이 있어 집밖에 나갈 때는 위탁모 등에만 있으려고 하는 엄마 껌딱지입니다. 위탁모는 영준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알고 있어서인지 더욱 애뜻해하며, 더운 여름에도 안겨만 있으려는 영준이가 예쁘다고 합니다. 위탁모는 일주일에 세 번씩 영준이를 데리고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어쩌다가 시골이라도 가서 치료를 하루 빠지게 되면 전전긍긍입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얼마 전, 영준이는 무릎으로나마 기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준이의 모습에 위탁모는 크게 기뻐하며 영상을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같이 기쁨을 나누자고 하면서요.

최근 영준이는 제법 오래 앉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신이 나면 짹짹을 하기도 합니다. 소고기와 각종 다진 채소들을 넣어 정성스레 만든 이유식도 잘 받아먹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위탁모의 노력만으로는 영준이가 걷거나 뛸 수 있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입니다.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등 각종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일반 가정에서 치료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영준이와 같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사랑으로 품어줄 양부모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평생을 진행해야 할지도 모르는 치료를 감당하기에는 사랑만으로도,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이니까요. 기적과 같이 양부모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영준이는 어쩌면 장애아동보호시설로 가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중적이며 효과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입니다. 현재 영준이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가정 안에서 아주 조금씩 새로운 것들을



1 물리치료를 위해 홀트병원에서 차레를 기다리는 영준이
2 힘겹지만 치료에 열심인 영준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만의 속도로 조금씩 새로운 것을 익히면서, 특유의 환하고 사랑스러운 웃음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김혜성 팀장 · 아동양육팀

홀트아동복지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ARS 060-700-1006
정기후원 1899-0923
후원계좌 기업은행 048-036405-04-014



천년의 노래, 마두금을 연주하는 소년 '친궁'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몽골의 전통악기 마두금. 마두금은 한국의 해금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부분에 말머리 장식이 있는 몸체에 두 개의 현을 활로 쳐서 연주를 하는 방식이지요. 마두금의 연주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몽골의 광활한 초원과 그 위를 달리는 말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마두금 음악은 세계 곳곳에서 연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두금의 고향, 몽골에는 마두금 연주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한 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친궁은 몽골 홀트드림센터가 위치한 울란바토르 시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친궁의 아버지는 친궁이 겨우 2살 때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어머니 혼자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홀로 생계를 책임지게 된 어머니는 절망적이었지만

'죽음으로 가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을 기억하며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의 작은 유치원에서 일을 했지만 급여가 낮아 두 아이와 함께 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 시로 올라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친궁은 울란바토르에서 학교에 입학했지만 방과 후에는 마땅히 있을 곳이 없어 어머니가 일하는 유치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싫어해 친궁은 가끔 유치원 화장실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까워한 어머니의 직장동료가 몽골홀트드림센터를 알려줬고, 그때부터 친궁은 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궁이 처음 마두금을 연주하게 된 것은 불과 4년 전이었습니다. 마두금 동아리를 하고 있는 어머니의 지인이 아이를 동아리에 보내도 된다고 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악기 연주가 낯설었지만 친궁은 점점 마두금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줄로 다양한 소리를 내야 하는 마두금은 배우기 쉬운 악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 연습하고 배울수록 악기 연주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친궁의 실력도 처음 배우는 아이답지 않게 나날이 늘어가 더 이상 무료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센터에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센터에서 지원하는 식사나 교육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 몽골홀트드림센터 발표회에서 열렸던 친궁의 마두금 독주회
2 몽골홀트드림센터에서 생일파티를 하는 모습

친궁의 어머니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혼자 힘으로 두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면서 빌린 집의 월세, 두 아이의 학비, 생활비 등 많은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홀트드림센터에서는 친궁의 학습을 위해 결연후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궁의 어머니는 종종 월세나 전기세를 밀리기도 하지만 결연후원금 만큼은 꼭 친궁이 마두금을 배우는데 사용합니다. 덕분에 친궁의 연주 실력은 나날이 늘었습니다. 작년 가을, 몽골홀트드림센터 개소식 때는 주몽골 대사를 비롯한 정부관계자, 지역주민 등 많은 손님들 앞에서 멋진 연주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예체능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친궁에게 결연후원금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귀한 선물입니다. 올해 여름, 대구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는 친궁과 같이 음악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 마두금을 포함한 다양한 악기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친궁은 센터 친구들에게 선물로 받은 마두금을 가르쳐 줄 계획입니다. 이제 다른 친구들도 친궁처럼 음악을 마음껏 배울 수 있겠죠? 언젠가 한국에서도 이 아이들의 멋진 마두금 연주를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을 찾아온 기적

조병국 명예원장 이야기

8월 12일, 홀트부속의원 조병국 명예원장은 제22회 만해대상 실천 부문상을 수상했다. 만해 한용운의 뜻을 기리고, 인류 화합을 위해 헌신한 분에게 주는 상으로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수상한 바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상이다. 처음 수상소식을 들었을 때 조병국 명예원장은 '자신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만해추진조직위원회는 50여 년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그의 공로를 인정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는 아이, 학대받는 아이, 그래서 세상이 미운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아이들을 거두어 사랑해 주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아직 살 만한 곳이다.” -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 282p (조병국 저, 삼성출판사)

의사이자 소외된 아이들의 엄마

조병국 원장은 1958년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시립아동병원에서 14년, 홀트아동복지회 부속의원에서 30년 이상을 '의사'이자 소외된 아이들의 '엄마'로 살았다. 1933년 평양에서 7남매의 맏이로 태어난 그는 두 동생이 속절없이 죽고, 한국전쟁 당시 아이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며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의과대학 면접에서 '유아 사망률'을 낮추고 싶다는 대답을 할 정도로 목표가 명확했지만 의사가 되는 길은 그리 쉽지 않았다. 비싼등록금과 여의사가 인정받지 못하는 풍토에 아버지는 대학 지원서를 찢어버렸고,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아버지 몰래 목돈장을 파 의과대학에 지원했다.

의사가 되어 처음 근무하게 된 병원은 서울시립아동병원이었다. “서울시립아동병원의 병상 수는 80개에 불과했다. 그런데 몇 년 후에는 입원 환자 수가 연간 2,000명으로 늘었고, 심지어 2,300명에 이르던 때도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병원의 재정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기저귀 감이 부족해 거의 모든 아이가 극심한 기저귀 발진에 시달렸고, 기저귀를 채울 고무줄이 없어서 한 번 사용한 링거 줄을 잘라서 썼다. -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 205p (조병국 저, 삼성출판사)”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이었고, 의료시설이나 약은 커녕 아이들 기저귀 감도 부족했다.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입힐 수의가 없어 얇은 창호지를 덧대 만든 옷으로 마지막 가는 길에 입하곤 했다. 병원에서 이미 모진풍파를 겪은 그였지만 하루 13장의 사망진단서를 쓰는 날에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주저앉아 허망하게 아이들을 저세상으로 떠나보낼 수만은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아이들은 특히 너무나 약했다

없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나 구호단체를 만나면 의료용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의료품과 의료기기를 요청해 한때 '국제 거지'라는 별명도 얻었다.

버려진 아이 대신 발견된 아이로

조병국 명예원장은 서울시립아동병원의 14년 근무를 마치고, 홀트아동복지회로 자리를 옮겼다. 약 1년간 홀트아동복지회에 파견근무를 했던 인연으로 시립아동병원에 근무하면서도 종종 봉사를 했다. 모두가 어려웠지만 유독 상처받고 아픈 아이들이 많았다.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 혼혈고아로 편견에 시달리던 아이, 추운 겨울에 죽기직전에 발견된 아이... 버려졌다는 마음의 상처는 종종 몸의 병으로 발현되기도 했다. 그런 아이들은 치료와 함께 사랑과 관심을 줘야 치유가 되기도 했다. 파견근무 시절 만난 해리 홀트(홀트아동복지회 설립자)는 이 아이들을 친자식 이상으로 살뜰하게 돌봤다. 그런 모습에 조병국 원장도 단지 '의사'로서만 아이들을 돌볼 수는 없었다. 그렇게 사명감으로 또 모성애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이 반평생을 넘어, 머리에 서리가 앉을 때까지 이어져 올 줄은 조병국 명예원장 자신도 몰랐다.

홀트에서 일하는 동안 조병국 명예원장은 ‘버려진 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버려진 아이’는 슬프지만 ‘발견된 아이’는 희망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입양 서류에 ‘버려졌음’이라는 말 대신 ‘발견되었음’이라는 단어를 기록했다. 그는 길에서 발견된 아이에게서도 일말의 희망을 발견하고 그 아이들에게 ‘행복할 기회’를 안겨주고 싶었다. 일하는 동안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는 것을 수도 없이 보고, 직접 겪었기 때문이다. 그런 희망이 없었다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봄이 오듯, 절망의 순간에서도 기적은 생겨났다. 그래서 조원장은 하루 100명의 아이들을 진료하느라 귀가 부어 청진기를 쫓기 힘들었을 때도 희망을 놓지 못했다. 수많은 기적 중, 조원장이 기억하는 특별한 아이가 있다.

말리 병국, 그리고 영수의 기적

88올림픽으로 온 나라가 술렁이던 날, 한 청년이 그를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영수예요! 저 기억 안 나세요, 뇌성마비 영수요.” 너무나 반가워 목이 맨 조병국 명예원장이 떠올린 이영수는 9살 때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였다. 영수는 다리를 심하게 절고 말할 때마다 얼굴 근육이 실룩거리는 뇌성마비를 가진 아이였다. 재활 치료를 꼭 받아야 했지만 치료 기구가 없어 양손을 벽에 짚어 몸을 기울여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했던 아이였다. 이 아이가 14살에 미국으로 입양을 가 의과대 학생이 되어 조병국 명예원장 앞에 나타난 것이다.

영수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부모님을 찾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는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찾을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행방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해 슬하에 자식도 있는 아버지는 영수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았다. 친부모를 만나는 데 실패했지만 한국에 있으면서 영수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다. 우연히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 2년 뒤, 영수가 한국에 의료봉사를 왔을 때에도 여전히 봉사를 하고 있었다. 오랜 인연 끝에 그들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고, 첫째 딸아이 수진을 입양했다. 둘째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홀트아동복지회와 조병국 명예원장의 인연을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말리 병국’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말리는 현재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현재 그는 영수네 가족과 피붙이같이 여기며 지내고 있다. 영수는 조병국 명예원장에게는 가족이자 동료,

그리고 정진하게 하는 거울이다. 장애에 굴하지 않는 열정과 의지,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영수에게 늘 감동하며 배운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해왔던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일깨우는 소중한 선물이었다.

올해 85세, 조병국 명예원장은 벌써 정년퇴임을 해야 하나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15년을 ‘전(前)원장’으로, 지금은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머물며 ‘명예 원장’으로 여전히 청진기를 놓지 못하고 있다. “세상에 태어난 생명이 그냥 시드는 것이 안타까워 한 번이라도 꽃피워주려 노력한 것”이 전부였다는 조병국 명예원장. 그렇게 아름다운 꽃망울을 틔운 아이들은 성장하여 이제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일산복지타운을 방문해 봉사 활동을 온다. 세상이 어지럽고 악한 일이 많아도 또 한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세상은 살만한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의사로서, 봉사자로서, 또 수많은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온 조병국 명예원장의 숭고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HWT](#)

참고_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대(조병국 저, 삼성출판사)
글_신유정·홍보팀

● 경력

- 2018년 현재, 홀트일산복지타운 진료 봉사
- 2008년 홀트아동복지회 명예원장 퇴임
- 1993년 홀트아동복지회 의원장 퇴임
- 1976년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의원 근무
- 1962년 서울특별시 시립아동병원 근무
- 195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전공의

● 수상이력

- 2018년 만해대상 실천부문
- 2015년 중외학술복지재단 성천상
- 2012년 입양의 날 국민훈장 동백장
- 2012년 삼성생명공익재단 비추미여성 대상
- 2010년 보령의료봉사상



☆ 오늘은 내 소원이 이뤄진 날! ☆



2018년 8월 14일, 롯데자이언츠와 한화이글스의 경기가 열리는 부산의 사직야구장.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날씨에 야구팬들의 마음도 덩달아 설레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 가벼운 발걸음을 따라 수안이 가족도 경기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날 수안은 11살 평생의 소원을 이뤘다고 합니다. 대체 수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수안이는 미국 오리건주로 입양을 갑니다. 입양부모는 수안이와 효은이 두 남매를 늘 밝고 따뜻한 환경에서 돌봐주었습니다. 웃음이 많고 마음 따뜻한 부모님 덕분에 이 가족은 늘 사랑이 넘쳤죠. 수안이 남매가 입양된 후에 엄마는 두 자녀에게 한국어를 알려주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문자 메시지는 한글로 보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 요리도 배워서 김치며 불고기, 김밥 등 웬만한 한국음식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아빠는 수안이가 야구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 야구팀에서 야구를 배울 수 있게 도왔습니다. 야구를 하면 할수록 수안이는 점점 더 야구의 매력에 푹 빠집니다. 어느 날 수안이는 한국에서 온 이대호 선수가 뛰고 있는 시애틀 매리너스 팀의 경기를 보게 됩니다. 경기 내내 발군의 기량을 뽐내고 있는 이대호 선수에게 반한 수안이는 이때부터 이대호 선수의 열렬한 팬이 됩니다. 자신의 유니폼에 이대호 선수의 등번호 10번을 새겨 넣고, 틈틈이 이대호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를 보며 야구 선수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2,3년에 한 번씩은 온 가족이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는 수안이네 가족은 올해도 한국에서 신나는 휴가를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여행에 다양한 계획이 있었는데, 특별히 롯데 자이언츠

경기를 보는 일정을 넣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대호 선수의 경기를 보는 것이 꿈이었던 수안이는 미국에서부터 기대로 가득찬 하루 하루를 보냈습니다. 8월 13일 저녁, 드디어 비행기가 인천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17시간의 비행이 피곤할 법도 한데 수안이네 가족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올해는 한국에서 어떤 즐거운 여행을 할까, 이 가족에게 한국은 여전히 반갑고 신나는 곳입니다. 다음날 아침, 수안이네 가족은 서둘러 기차를 탔습니다. 부모님은 온라인으로 도저히 경기 티켓을 구할 수 없으니 일단 부산의 야구경기장에 가보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안이를 놀라게 하기 위한 작은 작전이었지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도 못한 수안이는 실망반, 설렘반으로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도 보고, 전통시장도 방문하고, 유명하다는 밀면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수안이의 머리에는 온통 이대호 선수 생각뿐이었지요.



2 1 사랑이 느껴지는 수안이와 효은이네 가족
2 모국문화체험에서 한복을 입은 수안이와 효은이
3 수안이의 소원인 이대호 선수와의 만남



3 사직야구장에 도착해서도 표가 없을까봐 초초해하던 수안이는 아빠에게 표가 있다는 말을 듣고 될 듯이 기뻐하며 경기장으로 입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수안이 앞에 거짓말처럼 이대호 선수가 두팔을 벌리고 환하게 웃고 있었던 거죠!! 얼떨떨한 상황에 굳어버린 수안이를 이대호 선수가 꼬옥 안아줍니다. 그 큰 품으로 수안이의 꿈도 함께 안아줍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이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그런데 어떻게 수안이와 이대호 선수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시간은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양부모를 통해 수안이 이야기를 들은 홀트에서 '이대호 선수와 만나고 싶은 꿈'을 이뤄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사회공헌팀, SPOTV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고, 이 이야기가 이대호 선수에게까지 간 것이지요. 이대호 선수는 흔쾌히 만남을 약속했고, 그 만남이 오늘 이뤄진 것입니다. 또한 SPOTV는 이 가족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 주었습니다.

한 여름의 산타 같이 등장을 한 이대호 선수는 가족들 모두에게 모자, 유니폼 등을 선물했습니다. 아직 모든 게 꿈같고 얼떨떨

한 아이들에게는 유니폼과 모자에 직접 싸인을 해서 전해주었지요. 당일까지도 수안이에게는 모든 것을 비밀로 한 채, 깜짝 이벤트를 열어 준 부모님도 이 장면이 흐뭇하고 행복하긴 합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연신 감사를 전합니다. 이대호 선수는 대화 중에 기회가 생긴다면 선수 생활을 했던 미국 시애틀에 다시 가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수안이 부모님은 기뻐하며 이대호 선수를 집으로 초대했고, 이대호 선수는 꼭 가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미국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영웅, 이대호 선수를 만날 수 있다니! 수안이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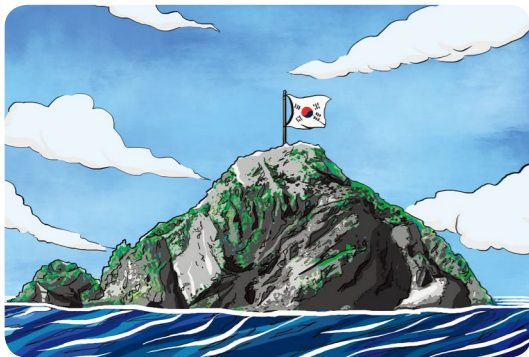
수안이는 이후 야구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이 더 커졌습니다. 항상 곁에서 꿈을 응원하는 부모님, 그리고 모국인 한국에 대한 사랑이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생각납니다. 수안이는 꿈을 꾸었고, 이 아이의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 온 마을의 어른들이 나섰습니다. 이토록 멋지게 수안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NT

독도에 울려 퍼진 감동의 하모니

홀트학교 장애학생 독도에 가다



73회 광복절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독도에 '아리랑' 합주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듬북과 가야금, 바이올린 등 다양한 악기가 빛내내는 아름다운 선율은 독도의 파도소리와 화음을 이뤄 듣는 이의 경탄을 자아냈죠. 우리나라 최초, 장애학생들이 펼치는 '독도사랑 음악회'의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홀트학교는 올해로 설립 43주년이 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입니다. 홀트학교는 학생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국토탐방, 나라사랑페스티벌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자라났고, 홀트학교는 이에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연주회를 계획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독도 연주회인 것이죠. '독도사랑 음악회' 팀은 총 50여 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입니다. 홀트학교 국악부 '우리랑' 학생 12명, 오케스트라 '예그리나' 9명, 그리고 홀트학교 교사와 외부 재능기부교사,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청 촬영팀 및 고양신문기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8월 9일, 울릉도에서 약 3시간 동안 배를 타고 도착한 선착장. 자연의 도움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독도에 도착하고 나서야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전날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인 탓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막상 독도에 도착하니 학생들도 선생님도 관계자들도 모두 감개무량한 표정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악기를 준비하고 드디어 지휘자 선생님의 손끝을 따라 연주를 시작합니다. 연주회를 위해 방학도 없이 헌신을 다한 그간 노력이 떠올라 연주를 하는 아이들도, 감상하는 사람도 마음이 몽클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곡은 아리랑 메들리, 다음 곡은 '소망에 관하여'라는 곡입니다. 이 순서에서는 팡파라 듀오 라보엠의 노래에 맞춰 학생들은 수화로 함께 노래했습니다.

2018년 평창패럴림픽 공식 응원가인 '하나 된 열정'을 마지막 곡으로 '독도사랑 음악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광복 73주년을 기념하는 홀트학교의 '독도사랑 음악회'는 모두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애는 불편함이지 불가능은 아니라는 홀트학교 학생들. 앞으로 이 연주회를 마음에 품고, 지금처럼 멋진 미래를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HaT



이날 연주는 경기도교육청 '레일스쿨'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됐다

Interview 01

"독도는 쉽게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비장애성인들도 어려워할 정도여서 독도 연주회는 어느정도의 위험부담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장애학생들과 처음 오케스트라를 구성했었을 때만큼 독도 연주회 또한 어려운 도전이었지요. 하지만 학생들이 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독도연주를 통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도전하면서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박에스더 교사 (음악회 총감독)

Interview 02

"잘 할 수 있을까? 염려했던 예그리나 오케스트라 활동은 지훈이를 적극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변화시켰습니다. 엄마인 저도 낯설게 느껴질만큼요. 건강하게만 자라 달라는 기도는 어느새 더 멋진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지훈이를 보며 알게 되었죠. 세상에 나오자마자 생사를 넘나들며 응급실 입퇴원을 반복했던 지훈이는 이제 멋진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꿈도 없었던 그때, 음악을 선물해 주신 선생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즐기고 있는 우리 지훈이.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최윤이 (홀트학교 천지훈 어머니)



파랑새, 꿈을 향한 첫 날갯짓

현대백화점그룹 후원 퇴소아동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지난 8월, 홀트아동복지회 강당에서는 퇴소아동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파랑새 꿈을 향한 날갯짓(이하 파랑새 꿈날)'의 후원협약식 및 발대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현대백화점그룹의 후원으로 진행되었고, 선발된 아동과 담당 시설의 자립전담선생님, 멘토, 후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축제 분위기의 첫 날갯짓이었습니다.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품은 '파랑새'

'파랑새'는 아주 좋은 길조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꿈을 향해 새롭게 날갯짓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은 사업명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마음이 통했는지 이 사업은 현대백화점그룹의 '파랑새 지원 프로젝트'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시설 및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소정의 지원금과 함께 시설에서 자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설이라는 울타리에서 자란 탓인지 자립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립지원금마저도 지자체별로 금액이 상이해 안정적인 자립을 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이 아이들이 퇴소하기 전부터 자립을 위한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받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멘토와 함께 하는 아이들

'파랑새 꿈날'은 시설을 퇴소하는 만 18세의 아이들에게 퇴소 전, 후 2년간 자립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고3학생 31명이 선발되어 지원을 받고, 내년 초, 고3 청소년 30명이 추가 선발되어 총 60여명이 이 사업과 함께하게 됩니다. 지원하는 분야는 진로, 경제,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대상에 맞게 개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의 대상으로 선발된 준일(19세, 가명)이의 꿈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본인을 키울 수 없었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정규직 사원이 되어 30대 이후에는 사업가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설에서도 친구들에게도 인기만점인 준일이의 발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어졌습니다. 준일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인생의 선배로 함께하게 될 든든한 멘토들도 선발되었습니다. 그 중 본인도 보육원 퇴소경험이 있는 범태현 멘토(23세)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아이들을 응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십여년간 보육원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의 대학진학의 과정까지 지켜보셨던 교수님 등 다양한 멘토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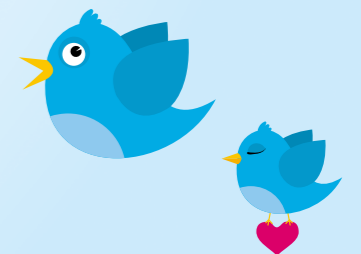
수많은 파랑새들을 기대하며

뮤지컬 배우 최정원 명예멘토는 이날 축하인사에서 "달동네에서 물을 길으러가야 할 만큼 가난했던 어린시절,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응원과 지지의 말이었습니다. 그 때, 제게 따뜻한 응원의 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이제는 제가 응원과 지지로 함께하는 인생의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라며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과의 인연은 2006년 계열사인 현대홈쇼핑의 미혼한 부모시설 건립후원을 시작으로, 휠체어농구대회 후원, 현대백화점의 바자회 후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백화점그룹과 함께 만나게 될 수많은 파랑새들을 기대합니다! 

글_김유진 · 나눔협력팀



1 명예멘토로 참여한 배우 최정원
2 아이들과 멘토가 함께 하는 마음열기 프로그램



365만 원의 특별한 돌잔치

나눔강사 이승이 님 가족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맞이하게 되는 특별한 날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소중하게 남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파티를 열기도 하며, 기념 촬영을 하기도 한다. 이승이 님도 얼마 전 딸 조이의 돌을 맞아 특별한 추억을 새겼다. 바로 홀트의 '특별한 후원'을 통해 하루 1만 원씩, 365만 원을 모아 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이승이 님 가족에게 딸 조이는 무척 소중한 존재다. 임신 중 검사를 통해 다운증후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보통 0.005% 정도로 결과가 나온다면 조이의 경우 10%로 모든 이들이 걱정할 만큼의 수치였던 것. 부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을 날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부부는 결정했다. 만약 아픈 아이가 태어난다면 편견을 피해 이민을 가자고...

“그때 아픈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나눔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마침 홀트의 나눔강사로 활동하면서 ‘나눔교육이란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돼 있던 터라 아픈 아이를 가진 가정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부부의 작지만 큰 도전은 그렇게 시작됐다.

365만 원이 지닌 의미가 공감되기를...

하루에 1만 원씩 모은다는 것이 언뜻 쉬운 듯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1만 원이면 밥 한 끼를 사먹고도 몇 천 원이 남는 돈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끼를 해결할 수 있기도 하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닌 것. 한 달이면 30만 원... 적금을 들어 목돈을 만들 수도 있는 액수다. “부담스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처음에는 모금통을 만들어서 매일 꾸준히 만 원씩 넣고 남편, 아기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7개월쯤 하다 보니까 자꾸 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머지 일수의 돈을 은행에 가서 미리 새 돈으로 바꿔 365만 원이 되도록 맞춰줬어요. 그리고 매일 만 원씩 넣어 드디어 365만 원을 모았죠!”

그렇게 모인 돈은 홀트를 통해 아픈 아동에게 전달되었다. 아이 방에 걸린 후원증서를 보며 그 돈이 누군가에게 전달돼 소중하게 잘 쓰였기를 가족은 지금도 함께 기도한다. “조이가 세 살쯤 되면 후원증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용돈이 생기면 100원이든 1,000원이든 자기 저금통에 넣고 있는데 벌써 2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걸 12월 1일에 기부할 계획이에요. 전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와 나눔을 습관화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조이가 자기보다 남들을 돌아보며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구요.”

양가의 부모님 외에는 지인들에게 특별한 기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승이 님은 “혹시라도 제가 한 일이 미화되거나 과장 될까봐”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인터뷰 도중 친한 사람들에게는 알려도 좋겠다고 생각을 바꾼 그녀. 더 많은 사람이 특별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서다. 365만 원의 특별한 나눔을 통해 ‘조이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느꼈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느낀다면 더욱 행복하지 않을까.

아이가 더 크면 가족과 함께 해외봉사를 떠나고 싶다는 이승이 님은 그 전에는 남편과 함께해온 농어촌 봉사활동에 집중할 것이며,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나눔활동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 “누군가가 당신의 상황에 공감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라는 그녀의 말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다는 걸 특별한 후원으로 실천해보면 어떨까? [Holt](#)

특별한 후원은 나와 우리 가족과 친구들의 특별한 날을 기념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후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첫돌후원, 생일후원, 결혼기념일, 환갑 등 내 생애 가장 특별한 날에 특별한 후원으로 사랑을 나눠보아요.

문의 02-331-7071 나눔지원팀



HOLT NEWS

2018 Autumn

본부

아름다운 청소년 '꿈 캠프'



8월 9일~10일 '2018 제12회 아름다운 청소년 꿈 캠프'가 열렸다. 12번째를 맞이하는 꿈 캠프는 '나를 충전하자'라는 테마로 자연을 누리며 선배 기수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2기로 선발된 10명의 선발자들은 선배 기수들이 기획한 '꿈'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꿈을 더 열심히 키워 나갈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되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울북지방 연합성회, 홀트가족사랑예배 진행



8월 8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울북지방 연합성회의 마지막 날 홀트가족사랑예배를 진행했다. 서울북지방 평신도부에서 주최하는 이번 성회는 노원구에 위치한 노원성결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박요한 홍보대사의 참여로 감동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워너원 박지훈 팬클럽, 후원물품 전달



8월 6일, 그룹 워너원의 멤버 박지훈의 데뷔 1주년을 기념해 박지훈 팬클럽 '박지훈 갤러리'가 에이프릴스킨의 밀크부스터 패스트 삼푸 1004개, 텀업컬러트리트먼트 300개를 기부했다. 후원물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탐리더스 임영진 후원자, 2018 대한민국 공헌대상 수상



홀트 고액후원자모임 탐리더스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경희대 의료원장이 7월 9일, '2018 대한민국 공헌대상' 의료부문 의료대상을 수상했다. 임영진 후원자는 부인과 두 자녀, 그리고 95세 노모와 함께 오랜 후원자로 함께 해오고 있다.

롯데GRS와 '맘행복한 미션' 진행



6월 20일부터 1박 2일간 롯데GRS와 파주동화 힐링캠프에서 '맘행복한 미션'을 진행했다. 미혼한부모 30가정을 초청해 '감성 콘서트' 및 '그림 그리기 대회' 등 가족에게 추억이 될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특별히 슈퍼스타K 시즌5 준우승자인 가수 박시환 씨의 힐링공연으로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하남초등학교 '홀트가족나눔교육-꿈나무 나눔 실천교실'



6월 19일, 하남초등학교에서 '홀트가족나눔교육-꿈나무 나눔실천교실'을 진행했다. '홀트가족나눔교육'은 아동들의 올바른 인성과 나눔, 배려,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배려, 협동, 존중, 공감 4가지 주제로 학생들은 나눔을 통해 더 큰 가족을 만드는 본회 미션을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천사네트워크 후원 몽골 게르 설치 완공식



6월 4일, 몽골 울란바타르 바양주르흐구에서 수원 지역의 봉사동호회인 '천사네트워크'가 후원한 몽골의 게르 설치 완공식을 가졌다. 천사네트워크는 몽골의 빈곤 아동과 가정을 위해 매달 회원들이 모은 1천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하였으며, 홀트드림센터 등록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4가정을 선정하여 게르를 지원했다.

미혼한부모가족 인식개선 동영상 공모전

미혼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 및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미혼한부모가족 인식개선 동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9월 27일까지 holtucc@holt.or.kr로 응모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홀트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지방사무소

부산사무소, 탐리더스 소미노 대표 강의



8월 8일, 홀트수영복지관 강당에서 탐리더스 정원호 위원(소미노 대표)이 강의를 진행했다. '지금 당장 성공하고 행복하고 사랑하자'는 주제로,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는 방법을 청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정원호 위원은 부인과 함께 최연소 탐리더스(고액후원자 모임)로 활동 중이다.

대구사무소, LG U+ (엘지유플러스) 임직원 봉사 참여



7월 12일 즐거운 직장인들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LG U+ 임직원들은 '디어패밀리박스 아기사발만들기' 봉사에 참여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정성을 다해 신발을 만들어 준 LG U+ 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충청사무소, 소중한 나눔



6월 19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학생들이

약 한 달 동안 직접 모금활동을 해 2백 여 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또한 7월 7일 앙상블피아노소리는 제 5회 정기공연 연주회 티켓 수익금 전액을 후원했다. 조성우 교수님과 백석대 학생들, 그리고 앙상블피아노소리에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한다.

인천사무소, 미혼한부모가정 후원 바자회



미혼한부모가정 아동 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7월 12일 진행했다. 인천후원회를 비롯해 인천사무소 탐리더스인 밀턴학원 등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바자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이날 수익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한부모 가정의 아동을 후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강원사무소, 홀트사랑나눔 바자회 개최



6월 26일 홀트강원후원회와 함께 홀트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입양아동지원, 미혼한부모가정지원, 저소득가정지원 등 지역 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일산복지타운

버다홀트 18주기 추도예배

홀트아동복지회 설립자 버다 홀트 18주기 추도예배가 7월 31일 오후 2시 홀트교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예배에는 특별히 지역사회로 자립하는



사론방 이해영 씨의 추모 글 낭독이 있었다. 감사한 마음을 담은 글은 예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린나래바자회



6월 15일, 홀트일산타운에서는 이용인들의 생활자금 및 자립지원을 위한 그린나래 바자회를 개최했다. 옷, 신발, 유아용품, 문구류, 이불, 기저귀, 화장품 등 많은 물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약 250여명의 지역주민이 방문했다. 하반기에도 바자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종합사회복지관

고양장애인복지관, 찾아가는 클린 빨래방



삼성전자 이동세탁차량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5톤(세탁/건조 겸용 4대 탑재) 세탁차량을 지원받았다. 지원받은 차량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외 고양시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찾아가는 이불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OLT NEWS

대구복지관, 몽골홀트드림센터 봉사



8월6일~11일,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후원으로 청소년 23명과 수성구 희망나눔위원 등 총 34 명이 몽골홀트드림센터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환경정화활동 및 가정방문(선물전달), 과학체험·태권도·K-POP댄스배우기 등의 여러 활동을 진행하였고, 230만 원 가량의 마డు금을 비롯한 약기 23점과 저소득가정 2세대에 게르 2동을 지원했다.

운봉복지관, 참사랑 봉사회와 '짜장면 DAY'



6월 5일, 해운대 참사랑 봉사회와 함께 무료중식 '짜장면 DAY'를 진행했다.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짜장면과 함께 후식을 맛있게 드셨으며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해운대 참사랑 봉사회와 지역주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하남복지관, '다(多)있다' 이동복지관 활동 실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다(多)있다' 이동 복지관 활동을 실시했다. 하남시 미사신도시 18단지 로 직접 찾아가 주민교육, 실내놀이터, 장애

인식개선 활동 등을 1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수영복지관, 지역주민 특강 '사이언스 라이브쇼'



대구 국립과학관에서는 부산 수영구 지역아동들을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는 과학을 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었다. 아이들은 색칠공부를 통한 증강현실, 계란후라이를 통한 분자요리, 실험을 통한 컬러사이언스 등 실생활 속에서 흔히 다루지는 소재들로 생동감 넘치는 과학을 배울 수 있었다.

본리복지관, 따뜻한 반찬나눔 서비스



7월 14일, 초복을 맞이하여 지역 내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130세대에 삼계탕과 수박 20통을 지원하는 '복달복달' 사업을 진행했다. '배달자원봉사자 및 가족식봉사단'이 삼계탕 조리과 배달, 후원금을 전달했다.

강동복지관, 개관 안내



홀트강동복지관은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 건립

된 복지관으로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복지관이다. 9월에는 사회참여지원 이용자를 모집하여 영역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침粥, 건강한 먹거리 '루술'의 선물



8월 기업 '루술'에서는 정성껏 만든 이유식과 아기 반찬을 후원했다. '루술'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는 자립 준비와 육아 병행으로 고군분투하는 미혼부모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고운돌, 워터파크 놀이



6월 30일, 미혼부모와 아이들은 부천에 위치한 웅진플레이도시 워터파크를 다녀왔다. 물놀이를 통해 아이와 엄마는 소중을 추억을 쌓을 수 있었고, 행복과 즐거움이 배가 되는 시간을 보냈다.

이름들, 미혼부모의 문화 놀이

6월 마포구에서 지원하는 '미혼엄마들의 자립 디딤돌-문화의 힘' 프로그램을 통해 연극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미술전시 '사갈展'을 감상했다. 평소 접하기

힘든 문화생활로 자존감 향상과 인문학 소양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대구클로버, 아이들과 함께 뮤지컬 관람



7월 28일, 미혼부모와 아이들의 문화나들이가 있었다. 엄마와 아이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지만 빠듯한 경제 사정으로 미뤄왔던 문화생활을 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대전클로버, 여름애 빠지다! 가족애 빠지다!



7월 14일 ~ 15일 대전클로버 가족캠프를 진행했다. 가족여행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또한 물놀이와 만들기를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춘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름방학교실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춘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재다능 여름방학

교실을 열었다. 여름방학 교실에서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컴퓨터 코딩교육과 독서교육을 진행했다.

전주영아원

행복한 미술관 나들이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마포어린이집에서 여름 캠프를 진행했다. 아이들은 공연관람, 에어바운스, 물놀이, 요리활동, 미술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함께 하며 여름철 무더위를 잊을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린이집

중동어린이집, 아쿠아플라넷 견학



7월 24일 만4.5세 어린이들이 아쿠아플라넷에 견학을 갔다. 바다와 육지의 여러 생물들을 보고, 수중쇼와 바다코끼리의 재롱도 관람했다. 아이들은 손으로 물고기를 잡고 소리를 귀에 대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018 Autumn

마포어린이집, 신나는 여름캠프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마포어린이집에서 여름 캠프를 진행했다. 아이들은 공연관람, 에어바운스, 물놀이, 요리활동, 미술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함께 하며 여름철 무더위를 잊을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홀트어린이집, 양성평등 인형극 관람



8월 13일, 홀트어린이집 강당에서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으로 찾아가는 인형극 <양성평등 관련 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다함께 관람하였습니다. 재밌는 레크레이션, 마술놀이 및 인형극을 통해서 눈높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심리상담센터

대구심리상담센터, 예비양부모 대상 교육



예비양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양육코칭 및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가정 내 건강한 울타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KakaoTalk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추가하고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아이폰 또는 안드로이드
카카오 검색창 아이콘을 클릭

검색창에서 플러스친구
"홀트아동복지회"를 검색한 후
친구추가를 눌러주세요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후원사업 소개

위탁아동양육 후원

친부모가 키울 수 없어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위탁아기들의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과 교육비, 의료비, 재활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미혼한부모가족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한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비 및 아동물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후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 학교를 운영해 체계적 치료와 자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장학 후원

1982년부터 시작한 '홀트장학금'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아동결연 및 사업 후원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해외 빈곤국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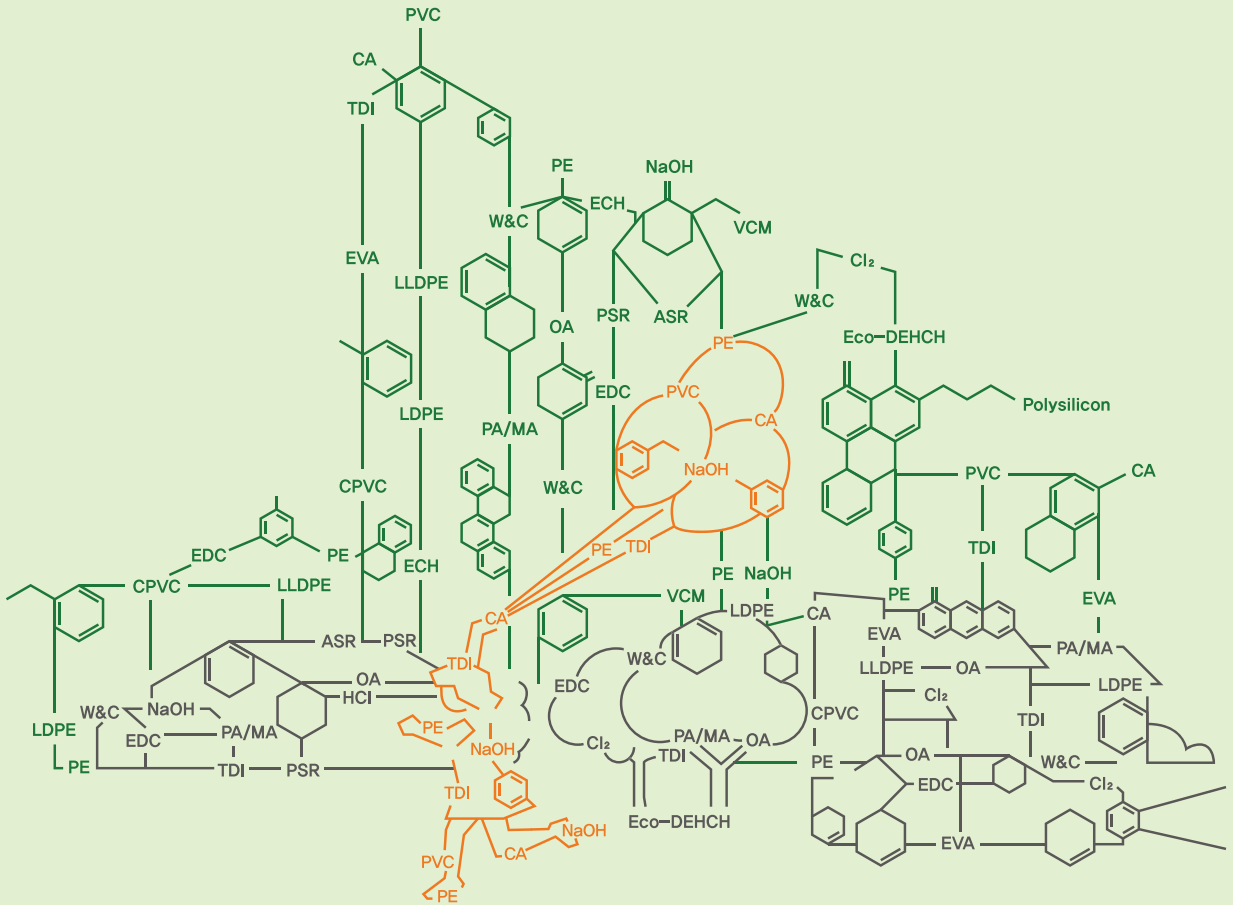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3~6
- ARS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홀트패밀리#이란?

뜻 있는 중소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매월 매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후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자영업, 중소기업, 프랜차이즈업, 학원, 병원, 카페 등
규모와 종류는 달라도, 따뜻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당신은 나눔 가족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한화케미칼이 함께합니다

작은 물건에서부터 건물까지 우리의 생활에 한화케미칼이 있습니다.

한화케미칼은 석유화학 전문기업으로 화학에 가치를 더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